

민주노총-진보4개 정당, “전국 각지 ‘진보단일후보’ 내고 총력 지원”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2.04.07 13:25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대선 실패 책임 통감…노동자 시민께 희망 안길 지방선거 만들 것”
“작은 목소리 내는 시민들 정치진출 봉쇄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노동당 나도원 대표(좌측부터),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진보단일후보를 배출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4개가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4개 진보정당 대표들은, 선거구가 중복되거나 단일화된 후보는 '진보단일후보'가 되며 각 정당과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의 기득권 양당정치로는 불평등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산업전환기에 돌입한 지금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서는 진보정치의 역할이 절박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을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다시 힘 모으겠다"고 천명하며 "우리는 지방선거 기간 보수양당 체제로 굳어진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의 정치를 안기고자 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단결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한 뒤 "선거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다.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양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보수양당체제 중심의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지방선거 기간동안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추영욱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당의 후보가 진보단일후보를 자당의 후보처럼 지지응원하는 활동 펼칠 예정”이라며 “이미 울산 북구와 동구 구청장 후보의 경우 단일화가 됐다. 오는 15일 단병호, 권영길, 한상균 등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과 울산을 찾아 단일 후보 지지하는 현장과 후보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대표와 사전논의해 힘 실어야 할 후보의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민주노총이 함께 지지응원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해 각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오는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는 현재까지 모두 163명이며 더욱 늘어나 전망이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총이 지지를 표명한 후보는 모두 511명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직접 출마했을 때 ‘민주노총후보’가 되며,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보정당 등의 후보를 민주노총이 지지할 경우 쓰인다.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추영욱 기자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통합노동당 나도원 대표가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나도원 노동당 대표는 “우선 정치 선거제를 총체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시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를 통해, 괴뢰위장정당(비례위성정당)이 출현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은 다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주판알안 튕기고 있다”며 “막대한 국고로 양당 선거비만 보전하고 소수정당과 정치시민을 알거지로 만드는 제도, 편향적인 TV토론 방식 등이 여전히 소수자-노동자 정치진출을 확고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개혁취지를 밝혔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지 못해 송구스러우면서도, 선거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마크롱은 1차 투표에서 24%의 지지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서 당선됐지만 마크롱 지지층이 24%라는 것을 프랑스 모든 국민이 알았다. 제도를 통해 대통령이 전횡을 부릴 수 없는 제어장치를 국민이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개혁운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 국민의 신임을 얻지도 못했다. 진보정당들이 뭉치고 단일화 한다고 곧바로 지지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평등 사회를 바꿀 의지가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비전이 있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제시하는 첫 걸음일 뿐이다. 다당제는 작은 목소리의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시민에게 진보정치의 자부심을 다시 갖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신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진보4당이 힘 모아 내딛겠다. 선거제도 개혁 투쟁과 함께 만들어감과 동시에 선거구에서 진보후보들이 단일후보라는 타이틀로 시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진보정치 단결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희망을 치위내 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선공동대응기구를 꾸려 후보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됐다. 지난 2월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당명 ‘노동당’으로 합당하며, 민주노총이 규정하는 진보정당은 5개에서 4개가 됐다.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추영욱 기자



4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추영욱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